

사·부·대·중

법회장의 '유명인사'

우리 불교계에서는 특별 법회나 행사를 자주 치른다. 예를 들면 국태인간기원대법회, 통일기원대법회, 영산재, 수륙재 등등이다. 이러한 대법회가 있을 때마다 인연있는 사부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손님은 장관, 국회의원, 지역기관장 등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미리 단상에 마련된 좋은 자리에 앉는다. 손님들은 그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법회에 동참한 일반대중은 신문지 한 장에 온몸을 내맡긴 채 오금저린 발을 주무르며 묵묵히 앉아있다.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 회장>

사람이 용기(勇氣)를 내어 일어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퇴장한다. 모든 대중의 시선이 그 쪽으로 집중되고, 한 스님이 허겁지겁 이들을 쫓아가서 정중히 배웅하는데 흡사 어른과 아이의 모습 같다.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친 듯 단상의 텅 빈 의자가 울췌너스러운 가운데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미리 단상에 마련된 좋은 자리에 앉는다. 손님들은 그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법회에 동참한 일반대중은 신문지 한 장에 온몸을 내맡긴 채 오금저린 발을 주무르며 묵묵히 앉아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법회가 시작된다. 대체로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수행사에 이어 격려사 또는 축사가 이어지는데, 이때부터 법회장은 정부·자치단체의 홍보장, 각 정당, 유서장이 된다. 이들의 장광설이 계속되는 동안 단상에 앉아 있는 손님들은 삼매(三昧)에 들어가고, 자리가 불편한 대중들은 온몸을 뒤돌고 연실 하품을 해댄다. 축사를 끝내고 자리에 앉자마자 자꾸만 손목시계를 쳐다본다. 이속고 한

법가에 이어 큰스님의 법문이 시작되자 모두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여기까지가 내가 수없이 보아 온 소위 큰 법회의 일반적인 광경이다.

유명 인사가 많이 참석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 주축자와 모인 사람이 곧 표방인데 종교야 어떻게 얼굴을 내밀고 보자는 정치인들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모양이다. 법회 본연의 목적을 등한시하고 일반대중을 볼모로 한 걸출행 사보다는 중생의 입장에서 내일이고 여법한 법회를 봉행하되, 초청된 분은 진심으로 자리를 빛내주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모든 가치의 판단은 국민 또는 중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불교포럼 '제3수행법을 묻는다-현대인의 수행법 찾아서'

불교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종교이다. 수행은 불교를 불교이게끔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수행의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다. 요즘 제3의 수행법으로 통칭되는 여러 수행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제3의 수행법이 무엇인지, 화두선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의 물음이 뒤따른다. 불교포럼(공동대표 박승원·김연규)은 24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제3의 수행법을 묻는다-현대인을 위한 수행법을 찾아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포럼은 오원명 법사(명상아카데미 대표)의 발제와 동국대 선학과 교수인 종호스님,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위빠사나 지도자 김열원씨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편집자

"화두선 어렵다...무엇보다 어떻게 중요"

발제 오원명 <명상아카데미 대표>

수행법에 대해 논쟁을 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생사문제와 고통받는 이 시대의 중생들을 위해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참다운 나 자신을 깨치고 진리를 깨쳐 세상에 나아가 보살행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각종 수행법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부처님께서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들이 제시하는 수행법의 '최고 경지'에 다다른 후에도 '생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 수련법들을 버리고 스스로 보리수나무 아래서 호출관찰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관찰을 통해 정각을 이루셨듯이, 스스로 그 수련을 받아보고 자신이 원하는 바의 수련이 아니면 버리려 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 화두선은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다고 하는지, 일부에서 화두 수행하는 분들이 범거랑 하는 것을 보고 '현실과 상관없는 관념의 유희'라는 소리를 하는지, 선이 정말로 현대인들에게 맞는 수행법인지, 오랫동안 수행하던 스님들 중에서도 화두로 깨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돌아보되 혹은 수행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참으로 생사문제에 대하여 화두선이든 위빠사나선이든 자신이 수행하여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면 이를 대중에 일러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될 일이며, 자신의 생사문제도 해결하지 못

했다면 무엇을 가지고 시비할 것인가.

아뵐타나 마음나누기 또는 여타의 수행을 통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당면한 고민이 해결된다면, 불교의 입장에서 최상의 수행법이라고 주장하는 화두를 들어도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번뇌만 쌓이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은가. 고통이 크든 작든 그것이 바르게 해결된다면, 화두 수행법이 아닌 여타의 수련을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화두 수행이 어렵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공부하는 자세와 노력한 바를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역대 조사들이 수없이 깨쳤던 바가 사실일진대, 누구든지 깨칠 수 있는 법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 또한 그의 단견이며 자신의 허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탐진치 삼독과 아상으로 형성된 망령된 자

기를 버려 참된 자기를 깨치고 진리를 깨달아 생사문제를 해결하여 고해의 바다를 건너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수행자로서 참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마음공부하고 명상하며 참선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자기를 버리고 장벽들을 서로 회통시켜 하나로 나아가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서로간에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명상을 하건 참선을 하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공부하는 공부법에도 자기뿐만 아니라 그 공부에 분명한 선지식들이 확연하다 할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다른 공부법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 공부를 확연히 알 때까지 공부하여, 오늘날 인류와 우리 사회가 참된 자신을 상실하고 탐욕과 감각적 쾌락과 서로 다른 모양과 견해와 무지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에 끊임없이 싸우고 사는 이 불타는 화해의 세계를 구제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토론

"위빠사나와 간화선 다르다"

종호스님 <동국대 선학과교수>

다양한 수행법들을 제3수행법이라 이름하여 구분하는 것이 문제다. 특히 뉴에이지나 향공 같은 불교 수행이 아닌 것까지 포함하여 제3수행법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와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안팎으로 깨달아 불교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다. 따라서 수행의 본질 자체에 대해 분명히 안다면 사실 이런 논쟁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제자는 여타의 수행을 통해 현재 당면한 고민이 해결된다면, 화두를 들어도 자신의 고민을 해결 못하고 번뇌만 쌓이는 것보다 긍정적인 것만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불교수행의 목적은 일시적인 고민 해결이나 마음의 안정이 아니다. 마음의 안정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수행의 목적이다.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다. 무엇을 가지고 수행하느냐 즉 관법의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행법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서도 위빠사나와 간화선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간화선이 최상의 수행법인 이유는 분명하다. 위빠사나가 자신에게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세분화된 방법인데 비해, 간화선은 하나로 묶어서(화두) 전체로 나아가는 수행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방법론상으로도 위빠사나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동등하게 봐서는 안 된다.

"깨우침 방법 많을수록 좋다"

김열원 <위빠사나 지도자>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의 본질과 진실을 관찰함으로써 괴로움의 원인과 만법의 근원을 깨달았다. 그것은 중도(中道)·연기(緣起) 그리고 실천법인 팔정도 사상으로 환축할 수 있다. 불교를 올바르게 믿고 수행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사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곧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우치고 가르치셨는지를 아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근본진리를 아는 것은 부처님의 원형 찾기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시대나 국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형이 있어 왔다. 하지만 그 근본 진리는 변함이 없다. 수행법도 마찬가지다.

요즘 제3수행법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 것 같다. 나는 무엇이 제3수행법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수행법에 제1, 제2, 제3의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것인가. 부처님의 사상에 입각한 수행이면 모두 불교수행법인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불교는 다방면의 종교이지 않는가. 깨침을 향한 방법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근기가 한결같이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가르침을 선행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사성제, 십이연기, 오온 등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치고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처럼 불교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 수행법은 문제될 것이 없다.

"화두선법엔 관법 녹아있다"

전재성 <빠알리성전협회장>

명상을 독립적인 수행법의 범주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교의 수행법은 생활·문화 등 삶의 총체적인 면과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명상은 특수한 기술적인 것이다. 삶의 총체적인 것과 분리된 명상적 기술과 불교의 수행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화두선법에는 관법과 지관법 등이 녹아들어 있다.

발제자가 지적한 "오늘날 화두선을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렵다고 하는지, 선이 정말로 현대인들에게 맞는 수행법인지, 오래 동안 수행하던 스님들중에서도 화두를 깨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물음들에 화두선 수행자의 답변은 있어야 할 것 같다. 중국선은 인도에서 생산한 능엄경, 능가경 등의 경전과 율체계를 바탕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조사선에는 중국의 특성을 강조하다보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우위에 두려는 잘못된 이상 같은 것이 배어있다.

화두선이 수승한 수행법임에는 분명하지만, 중국선에서 스며 있는 절대성은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선방은 사교인선(捨教入禪)을 강조하며 바로 선수행에 몰입한다. 선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 교리적 기초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이다. 소위 제3수행법이 유행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사교인선이라고 생각한다.

목탁소리

정성운 <취재1부차장>

지난 해 4월 총선을 며칠 앞두고 한 교구부사가 연 주지연수회장. 선거철인 탓에 낯익은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주 초록에서 이들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었는데, 한 국회의원은 "고등학교 때 사찰 옆에서 하숙했다"며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해 좌중을 웃겼다. 정치인들이 종교를 표로 바라보는 한 사례이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스님은 "교회에 가서는 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혼평했다.

최근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이 개인 교인이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정치인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위원은 여당 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이다. 조계종 전 계대화상을 역임한 일타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아 불자들 사이에서는 친근한 정치인이다. 일타스님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영결식 때 재가 불자를 대표해 조사를 낭독할 정도였다. 그런 그가 개인교인이 됐다는 보도는 불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이 위원에 친구인 한 목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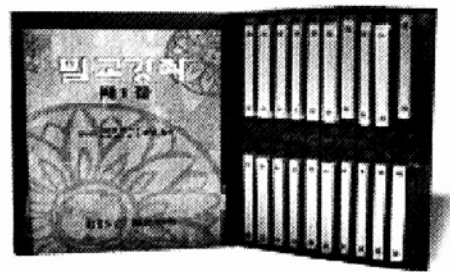
정치인의 종교

다소 과장된 언론에 일러 사실과 상당히 다르게 알려졌음이 밝혀졌다. 교회에 몇 차례 가긴 했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으며 교적도 그 목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이 위원측에서 해명했다.

이 위원의 개종 파동이 일시에 커진 것은 그 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준 태도에서 기인한다. 한 정당불자회의 주요 소임자가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사정을 들어 개신교로 돌아섰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종교를 바꾸는 것쯤도 용인되는가보다. 그래서 '정치인의 종교는 개별적(개인적) 가치의 세속적(세속적) 조어'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현실이다.

그러나 종교인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종교는 탈세속적이다. 그래서 어떤 가치체제보다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정치는 세속적이다. 탈세속적인 가치를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정치인의 태도를 종교인들이 곱게 볼 리 만무하다. 자기 종교에 철저히 다른 종교에도 애정을 가진 정치인, 이런 사람을 종교인들은 지도자로 뽑고 싶다.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해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문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해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대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금주: 최종웅 금액: 80,000원 문의전화: (02)913-0133~4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중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속을 갖는 것보다 낫다" -본초강목(P 1732)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송가피")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추출액, 목욕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전 화: 031)682-5033 FAX: 031)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http://myhome.netsgo.com/baeghj/

진성 석재 예술원

귀의 삼보하옵니다. 玉 전문 불사 업체 '진성 석재 예술원'이 사부대중과 대덕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육에 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이진익 명장: 이석규) TEL: 031-527-6778 (팩스: 031-527-6778) H P: 011-9046-6981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